

소수자들에 대한 감수성

■ 과목 소개

본 프로그램은 현 시대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특강들로 구성되어 있다. 구체적으로, 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, 학교 현장에서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삶의 현장에서 소수자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때, 소수자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소수자 감수성을 높인다.

■ 운영 전공: 상담심리전공

■ 필요성 및 목적

우리 사회에도 성, 나이, 장애, 인종, 국적, 종교, 사상 등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측면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. 사회적 소수자라 하면, 우리는 먼저 장애인, 난민, 성소수자 등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을 떠올리지만, 우리의 가까운 주변과 심지어 우리 안에도 소수성은 존재한다. 2개의 특강이 시리즈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심리전공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비롯하여 채식주의자 등 평소에 간과하고 있던 주변의 소수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,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해해볼 예정이다. 또한, 미처 알지 못한 내 안의 소수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기성찰 활동 또한 진행될 것이다.

■ 프로그램 개요: 수강생 30명 이내 (타전공학생도 수강가능)

차시	일시 및 수업형태	주제	세부 내용	준비
1	11/4(금) 18:00-20:00 ZOOM 비대면	소수지향의 심리학: 내 마음 속에 마이너리티	다양한 범주의 소수자들의 존재를 확인하고, 내 안의 소수성을 발견하여, 소수자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한다.	-
2	11/11(금) 18:00-20:00 ZOOM 비대면	아픈 사람에 대한 감수성: 우리가 몰랐던 존중의 의미	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,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“아픈 사람에 대한 감수성”을 증진시킨다.	-

■ 평가 및 과제 : 출석

■ 기대 효과

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증진,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강화, 소수 경험 및 소수성에 대한 개입 역량 강화